

# 신규 '김 활성화처리제' 어업현장 신속 보급 나선다

도, 국회서 개발 완료 성과 보고회  
친환경·작업시간 단축 비용 절감  
금지사 "올해 양식 시기 공급 노력"

전남도는 13일 국회에서 3년간 연구·개발을 거쳐 완성한 신규 김 활성화처리제를 어업 현장에 신속 보급하기 위해 국회의원, 관계기관, 어업인 등에게 설명하는 신규 김 활성화처리제 개발 완료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성과보고회에선 개발 경과와 성능 평가 결과 발표, 제품 사용 방법 설명, 어업인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해양수산부 '김 활성화처리제 사용기준' 고시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양식 어업인의 40년 숙원 해소를 위한 신규 김 활성화처리제는 기존 김 활성화처리제 대비 파래·요각류 제거, 균 억제 등 병해충 방제, 유해물질 부착 방지, 작업시간 단축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특히 기존 활성화처리제에 비해 산성분을 절반으로 줄여 친환경적이고 처리비용도

절감돼 어업인의 기대가 크다.

실제 2025년산 김 생산 시기 대규모 현장 적용 시험(4개 시·군 1천100ha)을 통해 어업인 130명이 직접 사용, 개발 제품의 효능을 검증했다. 신규 김 활성화처리제는 국내외 특허 출원을 통해 지식재산권도 확보했다.

지난 2년간 양식 현장에서 신규 김 활성화처리제를 사용한 김 생산 어업인은 "무기산 사용량의 절반 정도로도 효능이 충분하고 작업이 편해서 만족한다"며 "올해 김 양식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량 공급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때부터 약속한 무기산을 대체할 김 활성화처리제 개발을 도지사 취임 이후 관련 예산을 세워 마침내 어업인 40년 숙원을 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전남도와 수협이 힘을 모아 무기산을 대체할 효과 좋고 안전한 신규 김 활성화처리제 개발에 성공한 만큼 조속히 고시가 개정돼 올해 김양식 시기에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13일 서울 국회 소통관 앞 광장에서 열린 '전북 소비촉진 판촉행사'에 참석해 내빈들과 홍보 부스를 둘러보며 전북으로 만든 음식을 시식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 “전남 전북 양식 어가 돕자” 국회서 소비촉진 특별 판촉행사

음식 시식·가공제품 홍보·할인 판매  
위원장 의장·정청래 대표 등 힘 보태

전남도는 소비 부진으로 어려운 전북 양식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13일 국회 소통관 앞 광장에서 특별 판촉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우원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서삼석·전현희 최고위원,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한정에 정책위의장, 박지원·손명수 국회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신우철 완도군수 등이 참여해 전북 소비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현장에서는 전북 활용 다양한 음식 시식회, 활전복·전복 가공제품 홍보, 온·오프라인 할인 판매 등 다양한 판촉활동이 이뤄져 전남 전북의 품질과 우수성을 알렸다.

특히 이번 행사는 기존 활전복 위주의 시식에서 벗어나 전복꼬치·전복물회·전복비빔밥 등 다채로운 전북활용 메뉴를 선보였다.

전북어묵·전복차우더 등 가공제품을 홍보해 전북산업의 미래에 대한 새 길을 제시했다.

전복계란말이·김밥, 전복비빔밥 등 전복을 재료로 활용한 간편 도시락은 행사에 참가한 시민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전남도는 지난 5월 프랜차이즈 기업인 양생

김밥과 협업해 완도산 전복을 활용한 4종 메뉴를 개발했으며 이번 행사에서도 대대적 제품 홍보활동을 펼쳤다.

수협중앙회가 지역 생산어가로부터 직접 매입해 확보한 전복을 시중가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현장 할인판매가 이뤄졌으며 현장 구입이 어려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할인판매도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판촉행사를 통해 전북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알려지고 지역 어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길 기대한다"며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전남 수산물 소비의 신호탄이 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 교육 최고진·여가 원민경 장관 후보 지명

농어촌 김호·소청심사 정한중 위원장  
문체 1차관·2차관 등 차관급 9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고진(충남) 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원민경(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를 포함해 6개 부처·기관장 자리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는 주병기(전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이덕원(서울)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발탁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차정인(경남)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호(광주)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를 위촉하기로 했다.

광주 출신(1961년생)인 김호 신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장은 인성고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카데미 대표, 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 등을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일부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김진수기자



최고진 원민경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김영수(서울) 현 국립중앙박물관 물관 행정운영단장, 2차관에 김대현(충북) 전 문화체육관광부 중무실장을 발탁했다.

또 조달청장엔 백승보(부산) 현 조달청 차장을, 통계청장엔 안형준(서울) 현 통계청 차장을 승진 발령했다.

농촌진흥청장엔 이승돈(제주) 현 국립농업과학원장, 산림청장엔 김인호(충북) 현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기상청장엔 이미선(부산) 전 기상청 수도권기상청장을 임명했다.

이 밖에 국가정보원 3차장엔 김장섭(경북) 국정원 과학기술부서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엔 방용승(전북) 현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엔 정한중(전남) 현 외국어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김진수기자

## 서방천·용봉천 상습침수 대응책 모색

안평환 시의원, 재난대응 정책토론회

광주시의회가 서방천과 용봉천 인근의 구조적 상습 침수 원인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해법 모색에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13일 기후재난시대 재해 대응 릴레이 정책토론회를 열고 서방천과 용봉천 침수 원인 분석 및 물순환 기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광주시의회와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공

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북구 신안동 일대를 비롯한 침수 피해 지역의 반복되는 도시 홍수 문제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안평환 의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이 발제했다.

토론자료는 문종준 신안천 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희 광주전남녹색연합 생태보전위원장, 주진걸 동신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

수, 정현운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이 참여했다.

윤희철 센터장은 발제에서 "기후재난·지진·침수 등 재난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노후 기반 시설의 결함으로 도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도시 기반의 기후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정책 목표와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안평환 의원은 "최근 잇따른 물난리로 신안교 인근 주민들은 정상적인 생활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차수막 설치, 배수시설 정비 등과 같은 단기 처방이 아닌 기후위기시대 도심의 홍수 예방을 위한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광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은진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신호등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거리를 두고 일단 멈춰주세요. 보행자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